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0, 성전 위치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세션 10, 성전 위치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의 의미는 그가 궤를 주목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윗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공물을 모은 넓은 지역. 그러나 역대기 기자의 초점은 항상 다윗 제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레바논 산맥의 소바까지 아람 사람들을 정복하고, 아카바 만까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을, 사실상 지중해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의 의미는 그가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 왕국은 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윗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성전입니다. 따라서 개요에서는 다른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국이 설립되어 다윗이 다스리는 넓은 영토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기 기자의 가장 세부적인 내용은 성전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의 가장 큰 부분은 역대기가 10장부터 20장까지 약 10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국. 그리고 사무엘상하에서 차지하는

모든 세부 사항은 그 짧은 공간에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제국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인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거의 10장을 차지할 것입니다. 성전 준비는 다소 불길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성전 부지를 선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은 사무엘서의 행복한 이야기도 아니고 역대기의 행복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실제로 사무엘서에 있는 버전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보존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군인 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잘못되고 신실함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에게 의존하고 군대를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David는 자신이 보유한 군대의 수를 알아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몇 번이나 계산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대부분은 세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캐나다 연방 정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살고 그들이 일하는 것.

데이빗은 자신의 이 광대한 제국에 대해 좀 더 통제권을 갖고 싶었고 그의 전사 직업은 이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사무엘서에서 읽는 방식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에 대한 시험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너무 자만하고 자신의 전사들과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Chronicler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번역에서 이것을 이름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유혹한 사람이 사탄이었다고 대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악마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만든 번역가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그것을 악마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만드는 번역가의 선택에 도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도달할 때 마귀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는 악마의 왕자이고 최초의 유혹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서에서 사탄이라는 용어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사탄이라고 쓰여 있는데, 단순히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

당신을 잘못된 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의 군사 지도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군대의 일원으로 데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블레셋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자, 그들은 그가 어떤 종류의 악마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가 실제로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을 데리고 가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사울 편에 가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이제, 연대기 작성자가 이 용어를 매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어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그는 이 시점에서 사무엘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이 어떻게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음, 연대기 기자는 그것이 사탄이었다고 암시합니다.

즉, 다윗의 장군들 중 어딘가나 그의 군대 중 어딘가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대의 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방어 및 군사 절차 측면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인구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보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니며 군인들의 수를 조사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연대기 작가의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며 연대기 작가의 의미가 이것이 실제로 악마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대기 기자의 의미가 이것이 마귀였다는 것이라면, 연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무엘서와 모순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구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연대기 작가가 말한 것과 훨씬 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염병이 일어났고 실제로 선택권을 주었다는 사실을 한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염병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다윗은 심판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결백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에서는 다윗의 고백과 멸망의 천사, 말라크, 전염병을 가져온 사자가 멈추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그는 칼을 들고 있고 관찰되는 중개자로 간주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물론 이 시점에서 연대기 작가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말하는 사무엘의 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 재앙을 행하셨고 그것이 특정 장소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타작 현장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콤바인이라고 부르던 수확기, 즉 밭을 굴러 모든 곡물 씨앗을 뽑아 호퍼에 넣을 수 있는 큰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것들을 모아서 묶음으로 묶은 다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평평한 지역을 만들고, 씨앗을 두드리면, 바람이 지푸라기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역병이 그치는 타작마당이란 뜻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다윗이 바친 장소가 되며, 다윗이 제사와 불을 드리는 출애굽기 34장의 마지막 장막을 봉헌할 때 일어난 것과 같은 표징으로 확증됩니다. 솔로몬에게 바친 제물을 소모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개인적인 임무이며,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할 보좌, 왕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모으는 일과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맡긴 일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꽤 긴 이야기의 연대기 작성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의 삶의 중요한 일, 즉 다윗을 대표할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세션 10, 성전 위치입니다.